

## 오류 분석에 근거한 한국인의 의사소통 능력 평가 기준\*

전은진·장경희(한양대학교)\*\*

**Jeon, Eun-Jin & Chang, Kyung-Hee. 2007. Assessment Criteria on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Approached in Terms of Error Analysis. *Textlinguistics* 23.**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ssessment criteria of Korean's communicative competence depending on error analysis. The types of utterance errors were classified into a word error type(selectional error, combinational error), and a grammatical one(case error, terminational ending error, sentence structure error). The average frequency of errors came to be 6.718 and the standard deviation, 4.770 per 100 utterances. Their correlation turned out to be strong between terminational ending error and sentence structure error( $r = .64, p < .01$ ), and also significantly strong between case error and sentence structure error( $r = .41, p < .05$ ). Depending on the result of this error analysis, We were able to set up both of the average error range(4.21 ~7.71 per 100 utterances) and the draft of assessment criteria.

〈Key Words〉 communicative competence, assessment criteria, word error, selectional error, combinational error, grammatical error, case error, terminational ending error, sentence structure error

\* 이 논문은 2006년 12월 국립국어원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 《말하기능력 측정도구 개발 1》(연구 책임자: 장경희)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 주저자·교신저자

## 1. 서론

이 연구에서는 발화에 나타난 오류들을 통하여 한국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표준어 사용 여부와 문장에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과 빈도를 조사하려고 한다. 언어 능력의 반영으로 볼 때, 오류 분석을 통해서도 의사소통 능력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정확성, 다양성, 유창성, 상호작용성, 논리성 등 여러 요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평가 요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 지표나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각 요인별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표준어 사용과 문장 구성에 나타난 오류를 통해 정확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10대, 20대, 30대 연령의 일반인 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상 대화를 녹음·전사하고, 이에 대한 태깅(tagging) 과정을 거쳐 오류 실태를 조사하였다. 녹음은 각 파일(총 30파일) 당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이루어졌고, 녹음 내용에 대해 2,000어절까지 문자화하는 전사 작업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오류에 대한 마크업 작업을 200말차례까지 실시하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통계 처리를 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 기준 시안을 마련해 보았다.

## 2. 오류의 유형

이 연구에서는 구어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를 어휘와 문법의 관점에서 구분하였다. 오류 분석 결과, 두 유형의 오류는 다음과 같은 하위 구분이 가능하였다.

&lt;표 1&gt; 오류의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어휘 오류	어휘 선택의 오류	어휘의 형태적 오류
		어휘의 의미적 오류
	어휘 결합의 오류	연어 관계의 오류
		어휘 중복의 오류
문법 오류	조사의 오류	주격조사의 오류
		목적격조사의 오류
		부사격조사의 오류
		보조사의 오류
		조사 생략의 오류
	어미의 오류	연결어미의 오류
		전성어미의 오류
		종결어미의 오류
		시제·양태 어미의 오류
	문장 구성의 오류	어순의 오류
		호응의 오류
		생략의 오류
		중복의 오류

## 2.1. 어휘 오류

어휘의 오류는 어휘 선택의 오류와 어휘 결합의 오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어휘 선택의 오류는 전달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인데, 어휘의 형태적 오류와 어휘의 의미적 오류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은 어휘의 형태를 잘못 사용한 형태적 오류의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 (1) 나는- 안 가르켜 주지.
- (2) 개는 맨날 그러더라.
- (3) 안 뿌개져서 그거는 안 돼서.

(1)은 '가르쳐'를 '가르켜'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고, (2)는 '만날'을 '맨날'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3)은 '부서져서'를 '뿌개져서'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어휘의 의미적 오류는 의미에 맞지 않는 어휘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4-6)은 어휘의 의미적 오류가 나타난 발화들이다.

- (4) 건대 앞 지금 그거 못 가?
- (5) 아~ 조그만 인원이 다 가는 게 아니라?
- (6)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

(4)는 '건대 앞'을 지시하는 '거기'를 '그거'라고 잘못 사용하였고, (5)는 '수효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의미를 가진 '적은'이 더 자연스럽다. (6)은 '다르다'를 '틀리다'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휘 결합의 오류는 어휘가 다른 어휘와 함께 사용될 때 의미적으로 서로 호응하지 못하거나 의미가 중복된 경우를 말하는데, 연어 관계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어휘 중복의 오류로 구분된다. (7-10)은 낱말의 호응 관계에서 서로의 의미 성분이 어울리지 못하는 연어 관계의 오류가 나타난 발화를 제시한 것이다.

- (7)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어~ 또 꿈을 하는 거잖아.
- (8) 아까도 교실에서 막 수다했잖아.
- (9) 응. ((나가는 거 보면)) 참 얼토당토 없어.
- (10) 나는 활기차야 된다. 그러는, 그런 세뇌를 밤에 맨날(매일) 넣었다.

(7)은 '꿈을 꾸다'를 '꿈을 하다'로 잘못 사용하였고, (8)은 '수다를 떨다'를 '수다하다'라고 잘못 사용하였다. (9)는 '얼토당토 아니하다'라는 하나의 단어를 '얼토당토 없어'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 (10)은 '세뇌하다'라는 표현을 '세뇌를 넣다'라고 하여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sup>1)</sup>

---

1) '세뇌'는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던 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하거나, 특정한 사상이나 주의를 따르도록 뇌리에 주입하는 일'로 '넣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어휘 중복의 오류란 동일한 의미의 어휘를 겹쳐 써서 언어 전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오류이다.

- (11) 죄송하지만 애 때문에 연구에 방해가 되실까봐 정말, 어찌 뭐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
- (12) 개, 개랑 나랑 가장 디게(되게) 친했어-
- (13) 어우 끝내줬겠다. 어~ 응~ 좋아하는 스포츠 운동선수 있어?
- (14) 어~ 너-, 너의 원래 이상형 스타일은 어땠는데?
- (15) 이제 그 화해 무드 분위기가 깨질까 봐.

(11)은 ‘말씀’과 ‘말’, (12)는 ‘가장’과 ‘디게(되게)’, (13)은 ‘스포츠’와 ‘운동’, (14)는 ‘이상형’과 ‘스타일’, (15)는 ‘무드’와 ‘분위기’에서 보듯이 불필요한 유의 어들이 중복되고 있다. 중복 표현으로 인하여 발화의 명제 구성에 혼선이 초래되므로 이러한 중복 현상은 오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 2.2. 문법 오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법 오류는 조사의 오류, 어미의 오류, 문장 구성의 오류로 구분된다.

### 2.2.1. 조사의 오류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보조사 등 여러 조사에서 오류가 분석된다. 출현 빈도로는 보조사, 주격조사, 부사격조사 오류의 빈도가 높고 목적격조사와 조사 생략의 경우가 비교적 낮다.<sup>2)</sup> 조사 유형별로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주격조사의 오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본 연구에서 산출된 조사 오류는 다음과 같은 백분율을 보인다.

- (16) 나는 배는 안 아프고 이상하게 똥이 뽀뽀 흘러.
- (17) 니가 스타는 근데 똥가 잘 해?
- (18) 지금 여기 디지털 방송이 불려면 안테나 달아야 되는데.

(16-18)의 발화에서 주격조사를 다른 조사로 바꾸면 자연스럽다. (16-17)은 목적격조사 '을/를'로, (18)도 주격조사 '이'를 목적격조사 '을'로 수정하면 올바른 발화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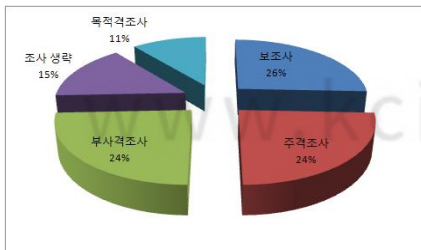
다음은 목적격조사 오류를 제시한 것이다.

- (19) 아~ 내가 씨- 변성기를 일찍 왔는데.
- (20) 마이크를 너무 멀은(먼) 거 같은데?

(19-20)의 목적격조사를 주격조사 '가'로 고치면 바른 발화가 된다.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오류를 분석해 본 결과, 주격조사는 목적격조사로 잘못 사용되고, 목적격조사는 주격조사로 잘못 사용되는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다음은 부사격조사의 오류를 제시한 것이다.

- (21) 강아지한테 매일로 밥 줘?
- (22) 내일에 아침에 애들이 보면 어찌지?
- (23) 일사구이에서 목도리 보러 가야지, 가야 되는데.
- (24) 아~ 근데, 나한테 자꾸 왜 궁금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 (25) 학교에서 팔았대-, 오백 원에서-,
- (26) \$이름;○○\$가 또, 그~ 음식에 해 가지고.



(21)은 부사격조사 '로'가 불필요하다. (22)에서도 '내일에'에서 '에'를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3)에서는 '에서'가 격조사 '에'로 바뀌어야 하고, (24)의 격조사 '한테'는 목적격조사 '를'로 수정해야 한다. (25)의 '에서'는 격조사 '에'로 수정해야 한다. (26)은 '에'를 목적격조사 '을'로 수정해야 한다.

(27-29)는 보조사의 오류를 제시한 것이다.

(27) 아휴 \$이름:○○\$는 지금 있었으면, 나는 죽는 목숨이야.

(28) 뭐, 딱(다른) 조마다 다 이렇게 할 텐데 뭐.

(29)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 같은 거만큼 치중해가지고 내가 원래 거기 인문계  
고등학교 말고 \$학교:○○\$, 거기서 오라고 그래 가지고 갈라고 그랬거든?

(27)에서는 보조사 '는'이 주격조사 '가'로 바뀌어야 자연스럽다. (28)에서는 '자신이 속한 조와 마찬가지로 다른 조도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이므로 '마다'를 '도'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29)는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만큼'이 사용되었는데, 격조사 '에'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조사가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맥락에서 조사가 생략되면 이때 조사 생략의 오류가 발생한다. 다음은 조사 생략에 의한 오류를 제시한 것이다.

(30) 딱 게임( ) 대해선 관심 없어.

(31) 야 너 야구 우리( ) 일본하고 했던 거 봤어?

(32) 회계사 받은 또 고시 반( ) 틀리게 두 개가 있다 그러더라고.

(33) 아침( ) 듣는 건가?

(34) 그 야채( ) 농약을 엄청 뿌리잖아 그 위에-.

(35) 진짜 요즘 선배들( ) 되게 잘못하면은, 완전히, 대가리 땡강 될 텐데.

(30)은 '게임'이라는 명사 뒤에 조사가 생략된 채로 '대하다'라는 동사가 오고 있는데, 조사를 반드시 넣어 주어야 바른 발화가 된다. (31)에서 '우리' 뒤에 격조사가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을 수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2)

는 ‘고시 반’ 뒤에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를 넣어야 하고, (33)의 ‘아침’ 뒤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를 넣어야 한다. (34)도 보조사 ‘는’을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 (35)에서도 격조사가 보이지 않는다. ‘선배들’에 주격이 올 수도 있고 여격이 올 수도 있어서 중의적인 발화가 된다. 따라서 정보 전달의 명료도를 높이면 조사가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sup>3)</sup>

### 2.2.2. 어미의 오류

어미 오류도 대부분의 어미에서 나타난다. 먼저 오류 출현 빈도가 어미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2> 어미 오류 출현 빈도

연령	연결어미	시제·양태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총합계
10대	3.5	1.5	0.5	1.0	6.5
20대	10.0	3.5	2.0	1.0	16.5
30대	7.0	2.0	2.0	1.0	12.0
총합계	20.5	7.0	4.5	3.0	35.0

어미 오류를 종합해 보면, 연결어미의 오류가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 시제·양태 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순으로 나타난다.<sup>4)</sup>

어미별 오류 양상을 보기로 한다. 연결어미의 오류의 예들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36) 으어, 음악실로 들어가면서 거기도 귀신 많던 거야.

(37) 그래가지구 왔다갔다거리는데 이상하게 내 옆에 와 가지구 나랑 놀았어.

3) 관형격 조사는 그 종류도 다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도 관형격 조사의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4) 본 연구에서 산출된 어미 오류의 출현 빈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38) 나 공부하는데 저녁에 늦게 자야지.  
 (39) 갑자기 선글라스 쓰고 오더니 갑자기 턱 벗더니-,  
 (40) 지금 안 사려면 나중에 돈 없어서 못 사는데 또.  
 (41) 돈이 없는데 돈 뽑아야 되는데 구천 원 들어 있는데 천 원 넣어야 되는 데 천 원 지금 집에 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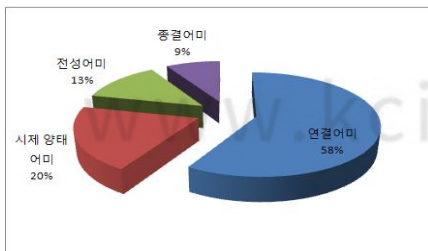
‘면서’는 동일한 주체의 동시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36)에서는 쓰일 수 없다. ‘들어가면서 보니까’ 등으로 다른 행위가 추가되거나, ‘들어갔는데’ 등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37-40)의 어미들도 올바른 사용이 아니다. 어미를 다음과 같이 교정하면 더 바르고 전달력 있는 발화가 된다.

- (37') 왔다갔다 그러다가  
 (38') ㄱ. 공부해야 하니까  
       ㄴ. 시험 있는데  
 (39') 오다가  
 (40') 사면

(41)은 ‘-는데’를 4번이나 반복 사용하고 있는데, 전달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어미와 문장 구조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

(42-48)은 전성어미의 오류를 지닌 발화들이다.

- (42) 환불을 할라고 했는데, 카드로 동시에 끊는(→끊은) 거라서,  
 (43) 아휴 \$이름:○○\$는 지금 있었으면, 나는 죽는(→죽은) 목숨이야.



- (44) 송구하기(→송구할) 따름입니다.
- (45) 마이크를 너무 벌은(→먼) 거 같은데?
- (46) 그럴 때 하루에 한 이만 원 정도밖에 못 벌은(→번) 거야.
- (47) 근데 진짜 너무 기빠서 울은(→운) 적도 있구.
- (48) 야 이거 이으는(→잇는) 거야.

(42-43)은 시제의 관점에서 어미가 잘못 사용되었고, (44)는 호응 관계, (45-48)은 동사의 활용 형태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 (42-48) 발화의 밑줄 친 부분들을 화살표 오른쪽과 같이 ‘어미’를 수정하면 모두 바른 발화가 된다.

다음은 종결어미의 오류를 제시한 것이다.

- (49) 별로 안 깎은데(→깎는데).
- (50) 이래서 수다는 아껴서 떨어야 하는지(→하나 봐).

(49)는 ‘깎다’라는 동사이므로 ‘-는데’로 고쳐야 하고, (50)의 어미 ‘-는지’는 ‘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것 같아, 하나 봐’ 등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음은 시제·양태 어미의 오류를 제시한 것이다.

- (51) 다시 또 옛날같이 됐었으면(→되었으면) 좋겠다.
- (52) 나는 불링 하다가 발에 찔었거든, 그 때 진짜 죽는 줄 알았더라(→알았어).
- (53) 나두, 나 나, 이천 원 있는데(→있었는데) 오늘 택시 타고 와 갖구 오백 원 남았어.
- (54) 옛날에 “어휴, 자식 나보다 작냐?” 이러는데(→이랬는데) 지금은 나랑 거의 비슷하니까 어~ 어~ 얼마나 어색한 줄 아냐?

(51-54)의 밑줄 친 부분들의 시제 또는 양태 어미를 오른쪽과 같이 교정하면 바른 발화가 된다. (51)에서 ‘-면’ 앞에 ‘-었었-’이 쓰이면 바람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52)와 같은 문장에서 일인칭의 경우 양태 어미 ‘-더-’가 쓰이지 못하며, (53-54)는 시제가 틀려 있다.<sup>5)</sup>

### 2.2.3. 문장 구성의 오류

문장 구성의 오류는 주로 어순, 호응, 생략, 중복 등의 관점에서 발생한다.<sup>6)</sup> (55-58)은 어순의 오류를 지닌 발화들이다.

- (55) 짜증나 나 한 번도 요즘 못 해.  
 (56) 계란 국은 약간 우리 엄마는 얼큰하게 끓이거든?  
 (57) 안 배 고파?  
 (58) 늦게 되게 해야 돼.

이들 발화들은 어색하고 전달력도 떨어진다. 이들 발화의 어순을 (55'-58')과 같이 조정하면 자연스러운 발화가 된다.

- (55') 짜증나 나 요즘 한 번도 못 해.  
 (56') 우리 엄마는 계란 국은 약간 얼큰하게 끓이거든?  
 (57') 배 안 고파?  
 (58') 되게 늦게 해야 돼.

- 
- 5) 존대어미의 오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론 보다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할 때 오류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30대의 경우 존대어미의 오류는 타 어미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본다. 1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보다 높은 빈도가 보이고 다음과 같은 예들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1) 그래 가지고 숙제 안 해오시면은?  
 (2) 하루에- 엄마가, 한 시간 하면 게임이 안 된다고 하셔서, 한 두 시간쯤은 하게 해주셔, 토요일은.
- (1)은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오면 선생님이 혼낸다'라는 발화이므로,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존대어미 '-시-'를 생략해야 한다. (2)는 '내가 "한 시간(만) 하면 게임이 안 된다"고 말을 해서, 엄마가 한 두 시간쯤은 (게임을) 하게 해 준다'라는 발화로, 줄친 부분은 아이가 한 말이기 때문에 '하셔서'의 '-시-'를 쓰지 말아야 한다.
- 6) 드물게는 사동, 피동, 접속의 오류 등도 나타난다.
- (1) 그래가지고 막~ 일등-, 이등 하는 애가, 일등 하는 애를 바닥에다가 굴렀다?  
 (2) 이성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  
 (3)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막~ 그, 사람들이, 밤중에 열, 밤 열두시에 들어가 봤는데, 그 사람들도 안 나오는 거야.
- (1)은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를 추가해야 하고, (2)는 '느껴져'라는 피동 표현으로 나타내야 한다. (3)은 '그래서'로 수정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오류는 본 연구 조사에서는 극히 미미하게 나타났다.

(59-61)에서는 문장성분 호응상의 오류를 볼 수 있다.

(59) 우리 집에 라면 엄청 없어.

(60) 별로 꾸러.

(61) 아까 씻고 올래.

(59)에서 '엄청'은 양이나 정도가 아주 지나치게 많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의 뜻인 '없다'라는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60)에서 '별로'는 적극적 태도나 자질이 부정될 때 쓰이는 말이다.<sup>7)</sup> (61)의 '아까'는 과거 시제와 호응하는 말이어서 '-르래'인 종결어미를 지닌 발화에서는 삭제해야 한다.

(62-66)은 문장성분 생략의 오류를 제시한 것이다.

(62) 어이, 어이, 아, 나 귀여우면은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 ) 안 됐어.

(63) 우리가 지금 이런 ( ) 당하는 거야.

(64) 우리 목소리보다 재네가 더 잘, ( )

(65) 종로에 있는 ( ) 뭔지는 모르겠어?

(66) 그리고 암컷은 팔이 다친 거야 싸워가지고. 그니까, 그러니까 암컷이,

( ) 구하려고 뭐 목숨 걸고 막 그러는 거야.

(62)는 '안 됐어'의 주어가 생략되었고, (63)은 '어려움을' 등과 같은 목적어가, (64)는 서술어가 생략되었다. (65)는 '종로에 있는'이 수식하는 말이 생략되었고, (66)은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이들 생략을 통하여 의사전달이 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들은 생략이 잘못된 경우, 즉 생략의 오류라 하겠다.

(67-75)는 중복으로 인한 오류의 예들이다.

(67) 너는 동생 무슨 단점- 뭐가 있어?

(68) 축구화 사러 갔는데 프로스펙스에 갔다.

7) '많다', '예쁘다', '크다' 등과 같은 적극적 자질을 부정하는 데에는 '별로'가 쓰이나, '적다', '땀다', '작다' 등의 소극적 자질 부정에서는 '별로'가 쓰이지 않는다.

- (69) 나는 밤새도록 내가 게임을 안 한다.  
 (70) 생일이 칠 월 십일 일이 생일이거든.  
 (71) 야 근데 이상하게 성적이 이상하게 나왔다.  
 (72) 어느 정도, 그 때 자기는 근데 생각하는 게 몇 명 정도 생각하는 건데?  
 (73) 너 떡볶이 집 가가지고 사먹은 다음에 여기서 보면서 먹자.  
 (74) 텔레비전에서 뭐 재밌는 거 하는 거 같은 거 없어?  
 (75) 중학교 올라오니까 급식이 안 돼, 급식이 안 되고, 급식이 안 돼.

이들 발화가 지닌 중복 표현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제외시키면 바른 발화가 되므로 (67-75)에 나타난 중복은 불필요한 중복, 즉 구성상의 오류라고 하겠다.

### 3. 오류 출현 빈도와 평가 기준 시안

#### 3.1. 오류 출현 빈도

2장의 오류를 유형화하여 10대, 20대, 30대의 오류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10대부터 30대의 100발화 당 오류 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100발화 당 오류 수(화자별 요약)

대상자	연령대	성별	전체 오류	어미 오류	조사 오류	문장구성 오류	어휘 오류
1	10대	F	0.855	0.000	0.000	0.855	0.000
2	10대	F	1.087	1.087	0.000	0.000	0.000
3	10대	F	6.087	0.870	0.870	0.870	3.478
4	10대	F	5.333	0.000	1.333	4.000	0.000
5	10대	F	4.098	0.000	0.820	0.820	1.639
6	10대	F	6.429	2.143	0.714	2.857	0.000
7	10대	F	6.316	1.053	0.000	2.105	2.105
8	10대	F	10.417	2.083	2.083	4.167	0.000
9	10대	F	6.452	0.000	0.000	3.226	3.226
10	10대	F	5.102	0.000	1.020	2.041	2.041
11	10대	M	5.825	0.000	0.971	1.942	0.971
12	10대	M	7.547	0.943	1.887	2.830	1.887
13	10대	M	10.072	0.000	2.158	4.317	2.878

14	10대	M	4.878	0.000	0.000	2.439	1.220
15	10대	M	2.667	1.333	0.000	0.000	1.333
16	10대	M	7.874	2.362	0.787	0.787	3.150
17	10대	M	4.274	0.855	0.000	1.709	1.709
18	10대	M	1.274	0.000	0.637	0.637	0.000
19	10대	M	0.787	0.000	0.000	0.787	0.000
20	10대	M	4.167	0.000	0.595	1.786	0.595
21	20대	F	7.216	2.062	0.000	5.155	0.000
22	20대	F	13.924	2.532	3.797	5.063	2.532
23	20대	F	3.797	1.266	1.266	0.000	1.266
24	20대	F	9.375	2.083	2.083	4.167	0.000
25	20대	F	12.676	1.408	1.408	4.225	5.634
26	20대	F	6.349	0.000	3.175	1.587	1.587
27	20대	F	16.049	1.235	3.704	4.938	3.704
28	20대	F	6.250	0.000	1.250	1.250	3.750
29	20대	F	7.229	0.000	2.410	3.614	1.205
30	20대	F	5.000	2.500	0.000	2.500	0.000
31	20대	M	5.063	0.000	1.266	3.797	0.000
32	20대	M	4.255	2.128	0.000	1.064	1.064
33	20대	M	4.202	0.840	0.000	1.681	0.840
34	20대	M	6.061	2.020	0.000	2.020	2.020
35	20대	M	5.128	0.000	1.026	1.538	2.051
36	20대	M	0.787	0.000	0.787	0.000	0.000
37	20대	M	4.459	0.637	1.274	0.637	1.911
38	20대	M	5.691	0.813	0.813	4.065	0.000
39	20대	M	7.407	0.741	0.741	5.926	0.000
40	20대	M	4.918	1.639	0.820	0.000	1.639
41	30대	F	10.588	2.353	4.706	2.353	1.176
42	30대	F	1.439	0.000	0.719	0.000	0.719
43	30대	F	4.348	0.621	1.242	0.000	1.863
44	30대	F	1.042	0.000	0.000	1.042	0.000
45	30대	F	17.910	4.478	2.985	6.716	0.746
46	30대	F	5.556	1.852	1.852	1.852	0.000
47	30대	F	5.556	0.000	2.222	1.111	1.111
48	30대	F	8.088	0.000	0.735	5.882	0.735
49	30대	F	16.197	0.704	4.930	7.042	2.113
50	30대	F	7.895	0.658	0.000	3.289	1.974
51	30대	F	2.542	1.695	0.000	0.847	0.000
52	30대	F	4.225	1.408	2.817	0.000	0.000
53	30대	M	15.702	3.306	0.000	4.959	6.612
54	30대	M	4.950	0.990	0.990	1.980	0.990

55	30대	M	2.878	0.719	1.439	0.719	0.000
56	30대	M	1.653	0.826	0.826	0.000	0.000
57	30대	M	6.087	1.739	0.870	1.739	0.000
58	30대	M	6.522	1.087	1.087	3.261	0.000
59	30대	M	23.404	5.319	2.128	9.574	4.255
60	30대	M	19.130	5.217	2.609	10.435	0.870

다음으로 연령별 오류 출현 빈도를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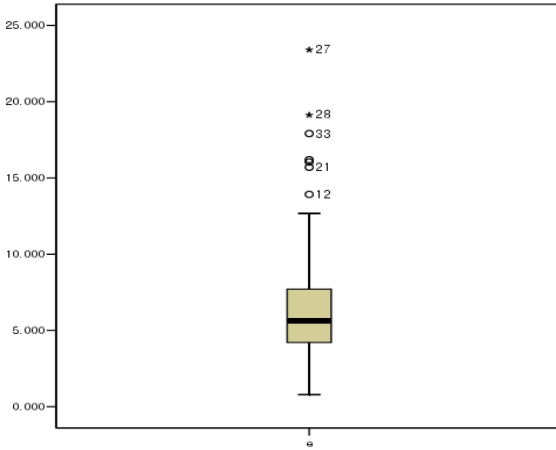
<표 4> 연령별 오류 출현 빈도

연령	평균	표준 편차
10대	5.076	2.802
20대	6.791	3.677
30대	8.285	6.623
합계	6.718	4.770

100발화 가운데 오류가 나타난 횟수는 전체 화자를 대상으로 볼 때 평균 6.718, 표준 편차는 4.770으로 나타났다. 화자의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오류 발생 횟수가 10대는 5.076, 20대는 6.791, 30대는 8.285로, 10대는 5회, 20대는 7회, 30대는 8회 정도로 발생한다.<sup>8)</sup> 그러나 오류 발생 빈도의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2.371$ ,  $p=.103$ ).

다음으로 전체 대상자의 오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연령 당 20명(남 10명, 여 10명)씩 총 240명을 대상으로 대화 상황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는 6.457, 중학교는 5.011, 고등학교는 4.479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오류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초·중·고 학생의 유형별 오류 출현 빈도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류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미  $P<.05$ , 조사  $P<.01$ , 어휘  $p<.05$ , 문장 구성  $p=.110$ ) 이처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의 오류를 조사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류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성인(20, 30대)은 오류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성인에 이르면 발화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져 100발화 당 오류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사분위수 : 4.21352  
 2사분위수 : 5.69106  
 3사분위수 : 7.71059  
 사분위간 범위 : 3.49707

[그림 1] 전체 대상자의 오류 분포

[그림 1]의 전체 대상자의 오류 분포를 통해 오류 발생 횟수의 평균 범위 (4.21-7.71)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형별로 오류 출현 빈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5> 유형별 오류 출현 빈도

연령	어미	조사	문장 구성	어휘
10대	1.41433 (.607564)	1.15634 (.571495)	2.12078 (1.233014)	2.01784 (.917506)
20대	1.56456 (.662629)	1.72128 (1.063955)	3.13109 (1.684740)	2.24638 (1.365256)
30대	2.06084 (1.634270)	2.00980 (1.332557)	3.92519 (3.150195)	1.93040 (1.781324)
합계	1.73349 (1.167030)	1.67098 (1.103341)	3.02364 (2.227056)	2.06841 (1.356134)



유형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미, 조사, 문장 구성에서 오류 출현 빈도도 높아진다. 어휘의 오류 출현 빈도에서는 10대보다 20대가 높고 30대에서는 감소한다.

각 유형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미 오류와 문장 구성 오류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r = .64, p < .01$ ), 조사 오류와 문장 구성 오류 간에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41, p < .05$ ).

<표 6> 오류 유형별 상관 분석 결과

		어미	조사	문장 구성	어휘
어미	Pearson Correlation	1	.283	.640**	.141
	Sig. (2-tailed)	.	.153	.000	.511
	N	39	27	32	24
조사	Pearson Correlation	.283	1	.410*	.042
	Sig. (2-tailed)	.153	.	.013	.832
	N	27	43	36	28
문장 구성	Pearson Correlation	.640**	.410*	1	.169
	Sig. (2-tailed)	.000	.013	.	.347
	N	32	36	51	33
어휘	Pearson Correlation	.141	.042	.169	1
	Sig. (2-tailed)	.511	.832	.347	.
	N	24	28	33	38

\*  $p < 0.05$ , \*\*  $p < 0.01$

### 3.2. 평가 기준 시안

이 절에서는 오류에 대하여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실태 조사 결과 오류의 평균 범위를 설정할 수 있었고, 어미와 문장 구성의 오류, 조사와 문장 구성의 오류는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평가 기준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오류 발생 횟수의 평균 범위(100발화 당 4.21~7.71)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 설정이 가능하다.

<표 7> 평가 기준

	오류수
상위(25%)	4.21 미만
중간(50%)	4.21 ~ 7.71
하위(25%)	7.71 초과

10대-30대 대상자는 오류의 발생 횟수가 100발화 당 4.21~7.71이다. 따라서 4.21 미만인 대상자는 다른 대상자보다 오류가 적다고 볼 수 있고, 7.71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문장 구성과 어미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r=.64, p<.01$ ), 문장 구성과 조사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r=.41, p<.05$ ), 문장 구성의 오류가 높은 대상자는 어미와 조사의 오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4. 결론

이 연구는 발화에 나타난 오류의 관점에서 한국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표준어 사용과 문법에 맞는 문장 사용을 통하여 오류의 유형과 출현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사소통 능력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시안을 마련해 보았다.

오류는 크게 어휘 오류와 문법 오류로 구분하였다. 어휘 오류는 어휘 선택의 오류와 어휘 결합의 오류로 구분하였고, 문법 오류는 조사의 오류, 어미의 오류, 문장 구성의 오류로 구분하여 오류를 조사하였다.

100발화 가운데 오류가 나타난 횟수는 전체 화자를 대상으로 볼 때 평균 6.718, 표준 편차는 4.770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어미 오류와 문장 구성 오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r=.64, p<.01$ ), 조사 오류와 문장 구성 오류 간에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41, p<.05$ ).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오류의 평균 범위(100발화 당 4.21~7.71)를 설정할 수 있었고, 어미와 문장 구성, 조사와 문장 구성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통해 평가 기준 시안을 마련해 볼 수 있었다.

언어 사용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문어를 중심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은 구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말하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하여 평가 지표 및 등급 설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모형 개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감미경(2003), 중학생의 말하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승혜(2005), "한국어 고급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 기초 연구 -고급 말하기 토론 활동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0, 1-21.
- 김건희·권재일(2004), "구어 조사의 특성," 한말연구 15, 1-22.
- 김광해(1997), 어휘력과 어휘력 평가, 선청어문 25, 1-29.
- 김봉모 외(1995), 국어 문장 단위 오류 유형 연구, 부산 한글 14.
- 김영아(1996), 한국어 세계화의 제문제 : 한국어에 대한 고찰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평가, 이중언어학 13, 63-105.
- 김유정(1999), 한국어 능력 평가 연구: 숙달도 평가(Korean Proficiency Test)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숙 외(2006), 한국어문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정숙·원진숙(1993),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이중언어학 10, 24-33.
- 이영숙(1998), 국어 오용 사례 유형과 그 대안, 한말연구 4, 241-264.
- 이완기(2003), 영어 평가 방법론, 서울: 문진미디어.
- 장경희(2006), 말하기능력 측정도구 개발 1, 국립국어원.
- 정광 외(1994), 한국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언어숙달도의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1, 481-538.
- Canale & Swain(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핵심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 기준, 어휘 오류, 선택 오류, 결합 오류, 문법 오류, 조사 오류, 어미 오류, 문장 구성 오류

전은진

(133-791) 서울 성동구 행당 17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언어분석실

전화 번호: 02-2220-2636

전자 우편: eunjin1510@hanmail.net

장경희

(133-791) 서울 성동구 행당 17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화 번호: 02-2220-1134

전자 우편: changkh@hanyang.ac.kr